

## 환율 폭등 시대의 양돈산업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WTO 체제의 출범은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시장개방이 무역으로 벌어먹고 사는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기회라고 UR협상때 정부 관리와 관변 학자들이 외쳐왔다.

농축산물에 있어서 수입개방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위기가 곧 기회다', '우리도 농축산물을 수출해서 공격형 농업을 하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등 각종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수출산업, 효자산업,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빈 돈사 채우기 운동, 백만두 더 기르기 운동까지 벌였던 양돈산업이 두달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더욱 걱정이다.

최근 개장과 동시에 거래가 중단되는 외환시장의 환율 폭등은 사료값, 약품값, 기자재값, 연료비 등 줄줄이 생산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불황은 구매력을 바닥권으로 떨어뜨려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개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반응은 다음

네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충격, 부정, 분노, 순응의 단계이다. 소화가 잘 안되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위암이라고 사형선고를 하면 우째 이런 일이 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의사가 돌팔이라 진단이 잘못되었을 거야 하며 위암을 받아 들이지 않고 부정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였는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더 잘사는데 세상이 잘못 되었다고 분노하게 된다.

이때 종교인들은 신과 협상을 하게 된다. 이번 위암을 고쳐주면 전재산을 바치겠다는 등 타협을 시도한다. 그래도 안되면 결국 순응하게 되고 죽음을 조용히 받아 들이게 된다. 한 나라 기업, 산업도 대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멸망해 간다.

얼마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외환위기라고 외신이 전했을 때 큰 충격을 받고 부정하였지만 외신들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위기를 더욱 실감나게 보도하자 분노의 단계를 거쳐 결국

IMF의 지원을 받아 적어도 자주경제의 깃발을 내리고 신탁통치로 들어가는데 순응하고 말았다.

몇달 전 선물시장에서 원화가 1,000원에 거래된다는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병들었나? 뭐가 잘못된 것일 거야 하고 부정을 해 보았다.

그 후 정부가 한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 후 환율은 1천대 일을 넘어서 천이백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드디어 우리도 IMF에 200억\$ 차입을 요청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태국, 인도네시아가 걸어진 4단계를 거쳐 순응하게 된 것이다. 다만 외국에서는 적어도 1,000억\$은 빌려가야 부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번 금융 불황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돼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양돈농가의 걱정이 태산이다.

추락 속도가 너무 빨라 충격을 받았고 김장철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고 그래도 양돈 밖에는 할 것이 없다고 불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나라 살림 자체가 어려워지니 이제 양돈업계의 장기 불황에 순응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생산비 5%를 내리기 위해서 잡도 못자고 노력하는데 하루아침에 환율이 올라 생산비가 10%나 인상되는 것을 우리는 과거 여러번 경험한 바 있다.

지난 10월 31일 부즈·앨런&해밀턴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진단을 한 후 "21세기를 향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주제의 보고회를 가졌고 모든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보고 내용의 결론은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다고 진단하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낀 호두알과 같아서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환율의 폭등,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실업률의 증가, 취업난, 주가 폭락, 금융기관의 부실, 1,200억불에 이르는 외채, 국제 신뢰도의 추락 등 소비 위축의 요인들로 이어지는 속에서 빛으로 세워진 양돈산업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적정 사육규모,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 효율적인 방역체계, 합리적인 유통체계, 가공품 소비물량 증가, 분노의 자원화 등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의견을 모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는 우리 나라의 양돈산업과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 나라의 양돈산업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養豚**

환율의 폭등,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실업률의 증가, 취업난, 주가 폭락, 금융기관의 부실, 1,200억불에 이르는 외채, 국제 신뢰도의 추락 등 소비위축의 요인들로 이어지는 속에서 빛으로 세워진 양돈산업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